

운영위원회 회의록

■ 일 시 : 2018년 7월 16일(월) 11:00-13:00

■ 장 소 : 서울강서등촌지역자활센터 3층 강당

■ 참석 인원

장재승 관장 (위원장), 박상신(운영위원), 이영민 교수(운영위원),
이태호 부장교사(운영위원), 이명호의원(운영위원),
김정민 실장(간사) 총6명

■ 회의 안건

- 서울강서등촌지역자활센터 현황 보고
- 2018년 2분기 자활근로 사업 주요 진행사항 보고

■ 기타 안건

- 자활사업 및 센터 홍보 방안

□ 개회 : 각 위원님들 소개하며 각자의 안부를 묻고 감사 인사말을 약 5분간 마침

□ 내용

- * 장재승 위원장으로부터 위원들의 회의 안건 순서결정에 대하여 가부를 물어 원안대로 진행함을 동의를 얻어 사업관련 전반적인 회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 김정민 간사가 브리핑하며 설명을 함(약20분)
- * 사업 브리핑 후 장재승 위원장의 사업에 대한 부연설명도 진행함.

* 이하 존칭 생략

- 위원장 : 위원님들 센터 및 사업 관련 조언을 부탁드립니다.
- 박상신 : 희망키움 통장의 경우 3년 동안 360만원을 적립하면 2350만원 정도 나머지 돈은 주는건가요? 지원을 해 주는건가요?
- 위원장 : 자산형성 통장별로 매칭되는 금액과 비율의 차이가 있습니다. 희망키움 통장의 경우 최대 5.5배까지 적립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며 정부지원과 외부 펀드에서 지원되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돈을 주는 개념입니다.
- 이영민 : 통장 유지 조건은 어떤 부분이 있으며, 지원을 해주는 조건은 어떤 부분이 있나요?
- 위원장 : 희망키움통장 1의 경우 탈수급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. 탈수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가져가게 되며, 일하는 수급자가 가입 조건이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수입이 없게 될 경우 통장 유지가 어려우며 본인적립금을 6회이상 넣지 않게 되면 통장 유지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.
- 이태호 : 3년 끝나고 난 뒤에 탈수급 이후 다른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?
- 위원장 : 탈수급이 되고 난 이후 따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. 자녀의 나이가 성인이 되어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탈수급이 될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분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.
- 박상신 : 통장 가입조건에는 어떤 부분이 있나요? 서로서로 통장 가입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는 부분인지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.
- 위원장 : 통장별로 만기 후 다른 통장으로의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런 부분은 자산형성 담당자가 상담을 통하여 가입권유

를 하기도 하고 서로서로 정보 공유를 통해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우선적으로 자활센터에서 가입신청을 받지는 않으며 구를 통해 가입 후 선정된 부분은 저희 쪽에서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부분입니다.

홍보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지자체와 주민센터에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
- 이영민 : 자활센터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어려운 분들도 많고 적응을 못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, 소양교육에 대한 부분이 사업단 이전 후에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.
- 위원장 : gateway 사업단 과정에서 주로 소양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각의 사업단에서도 소양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물론 사업단 같은 경우는 직무교육 위주의 교육이 진행되어지고 있지만 소양교육 또한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- 이영민 : 개인창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경험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죠?
- 위원장 : 개인창업으로 나가는 분들의 경우는 사업단 참여 중 자활기업을 희망하지만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거나 조건이 되지 않아 자활기업으로 창업이 힘든 경우 개인 창업으로 출범 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.
- 이영민 : 홍보의 시대인 만큼 많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처음 하는 분들도 대다수일거 같은데 사업에 대한 부분을 교육 부분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어떨지 하는 의견입니다.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게 될 경우 사업자 등록 발급부터, 매출 관리, 홍보 방법 등 다양한 교육이 있을 것 같습니다.
- 위원장 : 그러한 부분들은 담당자들이 같이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활기업 출범 시 전체적인 관리 또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같이 진행하고 있으며 참여주민들 단독으로 진행시키기에는 부담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.

- 박상신 : 지금 현재 센터에서 사업단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?
- 위원장 : 7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.
- 박상신 : 적은 인원으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거 같습니다. 이러한 부분들이 행정상으로도 잘 기록이 되어지고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. 사회복지 기관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잘 관리가 되어지지 않아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던 거 같습니다.
- 이태호 : 웹 마스터 및 웹 관리자 담당자를 한분 두게 될 경우 온라인 상으로 홍보도 진행 되고 사업단 내의 영업과 이런부분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
- 위원장 : 현재는 gateway 담당자가 홍보관련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와 더불어 웹진 발행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전문가를 저희가 별도로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. 혹시 사업 관련해서 위원님들에게 협조요청을 드리거나 부탁드릴 내용이 있나요 간사님
- 간사 : 네 현재 저희 사업단과 자활기업에서 청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외에도 개인창업으로 나가서 활동 하고 있는데요 혹시 위원님들께서 건물청소나 이외에도 청소 관련 업무가 생기면 홍보 및 연계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미 이태호 위원님께서도 학교를 연계 해주셔서 잘 진행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- 위원장 : 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특이 사항이 없으면 이것으로 2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* 참석위원 전원과 위원장의 폐회 제의로 폐회를 선언하니 오후 12시 30분이 되다.